2021학년도 경찰대학 1차 시험 (국 어)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밑줄 친 ㉠, ㉡의 사례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로는 소리대로 적는 ㉠ 표음주의와 어법에 맞도록 적는 ㉡ 표의주의가 있다. 표음주의는 표기가 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적는 원리이다. 반면 표의주의는 형태를 밝혀 적는 것으로서, 간단히 말하면 동일한 형태소를 고정해서 적는 원리를 말한다.

	㉠	㉡
①	쇠붙이	무르팍
②	쓰레기	달맞이
③	달맞이	쇠붙이
④	코끼리	쓰레기
⑤	무르팍	코끼리

2. <보기>를 참고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의'의 표준 발음
-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다만(1),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ㅢ'는 [ㅣ]로 발음한다. (예) 희망[히망]
- 다만(2),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예) 주의[주의/주이], 협의[혀븨/혀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① '의식'을 [의식]으로 발음하면 표준 발음이군.
② '너희'를 [너희]로 발음하면 표준 발음이 아니군.
③ '논의'를 [노늬]로 발음하면 표준 발음이 아니군.
④ '의의'를 [으이]로 발음하면 표준 발음이 아니군.
⑤ '너의 (집)'를 [너에]로 발음하면 표준 발음이군.

3. 밑줄 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모음과 모음이 결합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할 수도 있고, 두 모음이 합쳐져 하나의 이중 모음으로 바뀔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변동이 일어나든 모음과 모음이 직접 결합하는 것을 막아 준다.

① 비+어서 → [벼:서]
② 펴+어서 → [펴서]
③ 서+어서 → [서서]
④ 쓰+어서 → [써서]
⑤ 크+어서 → [커서]

4. 다음 문장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나는 정성껏 만든 선물을 몰래 엄마에게 드렸다.
> • 나는 예전에 존경하던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다.

① 세 자리 서술어가 쓰였다.
② 부사가 부사어로 나타난다.
③ 객체를 높이는 형태소가 쓰였다.
④ 관형어로 기능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가 나타난다.

5. ㉠에 속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그런데 접사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합성어로 분석되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금목걸이'가 대표적이다. 이 단어에는 접사 '-이'가 결합되어 있지만 '금목걸이'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이다. '금목걸이'를 둘로 쪼개면 '금'과 '목걸이'가 되는데, 이 둘은 모두 어근 또는 어근의 자격을 지니므로 '금목걸이'에 접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파생어가 될 수는 없다. 이처럼 ㉠ 접사가 포함되어 있어도 합성어로 분석되는 경우는 더 존재한다.

① 나뭇가지
② 병따개
③ 손가락질
④ 아침밥
⑤ 비웃음

6.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례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한글 맞춤법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예)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예)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예) 그렇다: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

…

① (가방에) 넣다
② (울음을) 울다
③ (젓가락을) 젓다
④ (색깔이) 벌겋다
⑤ (사이를) 잇다

7. 밑줄 친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동사 중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타동사, 그렇지 않은 것을 자동사라고 한다. 하나의 동사는 타동사 또는 자동사로만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때로는 ㉠ 동일한 동사가 타동사와 자동사로 모두 쓰이기도 한다. 예컨대 '움직이다'의 경우 '환자가 팔을 움직였다.'에서는 타동사, '환자의 팔이 움직였다.'에서는 자동사로 쓰이고 있다.

① 그는 사람들에게 천사로 불렸다. / 그는 갖은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다.
② 그는 수배 중에 경찰에게 잡혔다. / 그는 자기 집도 저당으로 잡혔다.
③ 그가 접은 배가 물에 잘 떴다. / 그는 집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떴다.
④ 그가 부르던 노랫소리가 그쳤다. / 그는 하던 일을 갑자기 그쳤다.
⑤ 그는 품행이 매우 발랐다. / 그는 손에 연고만 발랐다.

8. 빈칸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 타다[2] [타다]
> 활용 타[타], 타니[타니]
> 「동사」
> 1.【…에】【…을】
>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얹다. (예문) 비행기에 타다.
> 2.【…을】
> 「1」 도로, 줄, 산, 나무, 바위 따위를 밟고 오르거나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 (예문)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탄다.
> 「2」 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 (예문) [㉠]
> …

① 썰매를 타려면 장갑을 꼭 끼어야 한다.
② 그는 따뜻한 차를 타서 천천히 마셨다.
③ 사람들은 틈을 타서 도주하려고 했다.
④ 아이들이 놀이 기구를 타러 가고 있다.
⑤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9.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한글 자모 24자 중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는 10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중성자 11자 중 'ㆍ'가 없어진 결과이다. 이 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10개의 글자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적인 글자이다. 가령 'ㅐ'는 'ㅏ'와 'ㅣ'의 두 글자가 합쳐진 것이고 'ㅞ'는 'ㅜ, ㅓ, ㅣ'의 세 글자가 합쳐진 것이다.

① 'ㅟ'는 'ㅜ'와 'ㅣ'의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② 'ㅒ'은 'ㅣ'와 'ㅖ'의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③ 'ㅘ'는 'ㅗ'와 'ㅏ'의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④ 'ㅝ'는 'ㅜ'와 'ㅓ'의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⑤ 'ㅙ'는 'ㅗ, ㅏ, ㅣ'의 세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10. ㉠~㉤ 중 '선혜'를 높이는 말이 아닌 것은? [3점]

> 善慧(선혜) 精誠(정성)이 ㉠至極(지극)ᄒᆞ실ᄊᆡ 고지 소사나거늘 조차 블러 사아지라 ㉡ᄒᆞ신대 俱夷(구이) 니ᄅᆞ샤ᄃᆡ 大闕(대궐)에 ㉢보내ᄉᆞᄫᅡ 부텻긔 받ᄌᆞᄫᆞᆱ 고지라 몯ᄒᆞ리라 善慧(선혜) 니ᄅᆞ샤ᄃᆡ 五百(오백) 銀(은) 도ᄂᆞ로 다ᄉᆞᆺ 줄기를 사아지라 俱夷(구이) ㉣묻ᄌᆞᄫᆞ샤ᄃᆡ 므스게 ㉤ᄡᅳ시리
>
> [현대역] 선혜가 정성이 지극하시므로 꽃이 솟아나거늘 좇아서 불러 사고 싶다고 하시니, 구이가 이르시되 대궐에 보내어 부처께 바칠 꽃이라 못하리라. 선혜가 이르시되 오백은 돈으로 다섯 줄기를 사고 싶다. 구이가 물으시되 무엇에 쓰시리?

① ㉠ ② ㉡ ③ ㉢ ④ ㉣ ⑤ ㉤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년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인공 지능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에드몽 드 벨라미(Edmond de Belamy)」라는 초상화가 43만 2천 달러(약 5억 원)에 낙찰되었다. 이 사건은 해묵은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인공 지능이 그린 그림을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누군가 돈을 주고 샀으니 예술품인 걸까? 우선 인공 지능이 그린 그림이 팔렸다는 사실 자체는 예술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두고 싶다. 5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조차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 예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예술품이 일단 시장에 나오면 그것의 가치는 예술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한다. 따라서 인공 지능의 그림이 경매에서 5억 원에 팔렸다는 사실 자체는 뉴스가 아니다. 누군가 이 그림이 앞으로 더 비싼 값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거래에 있어 그림이 진짜 예술품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이 예술품인지 여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E. H.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된다. "미술(art)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미술가가 하는 일이 미술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미술가는 누구인가? 미술 하는 사람이 미술가니까 결국 자기 참조의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닌가? 곰브리치의 말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결과물이 미술품인지 판단하는 근거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든 주체에 있다는 것이다.

미술가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할까? 2005년 '콩고'라는 침팬지가 그린 그림들이 약 2,500달러(약 250만 원)에 팔렸다. 콩고는 1964년에 죽었는데, 살아 있는 동안 수백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콩고가 그린 것이 예술품이냐는 문제에 있어 그림이 팔렸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인간이 만든 것만이 예술품이라면, 콩고의 작품은 예술품이 아니다. 하지만 작품은 언제나 작가에 의해 만들어질까?

앤디 워홀은 그의 작품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 앤디 워홀의 작품이 예술품이라면 기획이나 지시만으로도 예술품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인간이 주체라면 의도만으로 예술품을 만들 수 있지만, 동물은 자신이 기획하고 직접 제작하더라도 예술품을 만들 수 없다. 동물은 자신이 그린 그림의 지적 재산권도 가질 수 없다. 동물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물에 대한 법적 권리가 예술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까? 법인(法人)은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의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재단 법인은 소송, 소유, 계약에서 재물(財物)이 인간의 권리를 갖는 것인데, 인간의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재단 법인이 그린 미술품은 없다. 하지만 인간은 필요하다면 자신의 권리 일부를 법인이라는 비인간에게 줄 수 있다.

미술가를 인간으로 국한하더라도 인공 지능이 그린 그림은 예술품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면 된다. 아니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된다. 인공 지능은 침팬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인간을 흉내 낼 수 있다. 아니, 기술적으로는 웬만한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인공 지능의 작품이 예술품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어쩌면 예술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뿐이다. 결국 인공 지능이 그린 그림이 예술품이냐는 질문은 논리나 예술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법인과 같이 인간이 자신이 가진 예술적 권리의 일부를 인공 지능에 양도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때부터 인공 지능은 예술가가 될 것이다.

11.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여 쟁점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② 대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논쟁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③ 인과 관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사회적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④ 다양한 가설을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충돌되는 견해의 유사점을 강조하고 있다.
⑤ 적절한 예시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주장에 내포된 공통점을 부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1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침팬지의 그림이 팔렸다는 데서 침팬지도 그림의 지적 재산권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인간만이 예술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인공 지능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근본 바탕이 된다.
③ 예술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인공 지능의 그림이 경매에서 거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재단 법인은 인간에게 소송, 소유, 계약의 권리를 부여받더라도 예술품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⑤ 예술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가운데 그림의 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다.

13. 하는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엄마가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했다.
② 내 친구는 건강한 삶을 목표로 했다.
③ 오늘은 가족들이 점심으로 냉면을 했다.
④ 범인은 그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했다.
⑤ 그는 대학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전공을 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2009년 소더비 경매에서 앤디 워홀의 작품 「200개의 1달러 지폐」는 4,380만 달러(약 500억 원)에 팔렸다. 인공 지능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그림의 100배 가격이다. 앤디 워홀의 작품은 제목 그대로 1달러 지폐 200장이 가로 열 개, 세로 스무 개로 열을 맞춰 늘어서 있다. 1달러 지폐는 전문 판화가가 제작한 것이다. 앤디 워홀이 직접 한 일은 판화를 200번 찍은 것뿐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그마저도 다른 사람이 했을지 모른다. 이런 작품이 500억 원에 팔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① 앤디 워홀은 오비어스보다 그림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공력을 들였다.
② 앤디 워홀은 미술품을 직접 제작했지만 오비어스는 작품 제작을 직접 하지 않았다.
③ 앤디 워홀의 기획과 지시는 인간의 의도가 반영된 인공 지능의 창작과 크게 다를 바 없다.
④ 콩고가 그린 그림이 매매되었다는 것과 오비어스가 그린 그림이 매매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⑤ 오비어스가 그린 그림보다 콩고가 그린 그림이 앤디 워홀의 그림 수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려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또꽤닮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퍽섭섭하오

- 이상, 「거울」

(나)

[A]
산모퉁이를 돌아 논 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B]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C]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D]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E]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다)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시의 표현 기법과 상식적 질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의식의 세계를 표출하고 있다.
② (나)는 병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현실적 상황과 대비되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③ (다)는 은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대립과 갈등을 직접적으로 표면화하고 있다.
⑤ (나)와 (다)는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6. (가)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울 속에도 세상이 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느낀다.
② 거울 속의 자신과 악수를 시도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악수를 받을 수 없다고 여긴다.
③ 거울 속의 자신에게 대화를 시도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④ 거울 속의 자신과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거울이 있기에 거울 속의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⑤ 거울을 안 쳐다볼 때도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울 속의 자신과 늘 함께 행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17. [A]~[E]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 : 화자는 우물 속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현실에 비판적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② [B] : 화자는 현실 초월적인 자신의 모습에 슬픔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③ [C] : 화자는 현재 상황과 비판적 거리를 둠으로써 미래에 대한 동경의 자세를 드러낸다.
④ [D] : 화자는 자신에 대한 애증을 반복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타협적 태도를 드러낸다.
⑤ [E] : 화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자신을 추억하는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낸다.

18. ㉠~㉤에서 의미하는 시적 대상이 다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19. '거울', '우물', '차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거울'은 사회를 반영하는 대상으로 현실 비판의 매개체로 작용한다.
② '우물'은 바라봄과 드러남의 양면성을 통해 현대인의 불안의식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③ '차창'은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통로가 된다.
④ '거울'과 '차창'은 밖과 안의 대비를 통해 단절된 자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부각한다.
⑤ '우물'과 '차창'은 자기 자신을 긍정의 대상으로 심화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작권은 표현에 미치고, 표현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 저작물의 보호 요건인 창작성의 판단 역시 표현에만 적용된다. 비록 아이디어가 진부하다 할지라도 그 표현이 ㉠ 어떤 것을 모방하지 않은 독자적 성격을 띤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러한 기준을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이라 한다. 저작권법에서 이렇게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별하여 표현만 보호하는 이유는 ㉡ 어떤 아이디어를 특정 사회 구성원의 소유로 하는 것이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제한 없이 공유되고 소통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먼저 착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자칫 헌법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자유로운 토론이 제약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의 의의가 있다.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착상(conception)이 특허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실제 저작물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소설을 예로 들자면, 개별적 사건에 관한 서술은 표현에 가깝겠지만 그 사건을 구성하는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 등은 표현과 아이디어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즉,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에 따라 표현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아이디어에 가까워지고는 한다.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이 문제가 종종 심각하게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창작자와 미래의 창작자 양쪽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선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표현으로 보호하는 범위를 너무 좁게 함으로써 현재의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꺾는다거나, 반대로 그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함으로써 미래의 창작자가 창작 활동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표현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논리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매우 제한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부인되기도 한다.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들 중 ㉢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느냐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먼저 '합체의 원칙'이다. 특정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당초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오직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는 저작권 보호가 부인된다. 만일 그러한 표현마저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그와 합체되어 있는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권 내지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실상의 표준'이다. 처음 창작을 할 당시에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 어떤 표현 방법이 업계의 표준으로 굳어져 통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와 같은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후발 업자는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경쟁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사실상의 표준은 사후적인 합체에 해당하므로 최초 창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끝으로 '필수 장면'이다. 합체의 원칙이 주로 기능적인 저작물에 적용된다면, 필수 장면은 예술적 저작물에 주로 적용된다. ㉤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당연히 도입해야만 하는 사건 또는 장면이나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과 같은 요소들은 설사 그것이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장래의 다른 창작자가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및 발전을 추구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저작권에 대한 이론의 변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② 저작권의 개념과 그 유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저작권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④ 저작권에 관한 심화 내용을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저작권에 관해 쟁점이 된 사건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있다.

21.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아이디어와 착상은 법적으로 서로 다르다.
②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③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는 것은 판단하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④ 최초 창작자의 이익 보호는 특허법의 소관 사항이어서 저작권과는 무관하다.
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유명 작가의 그림을 베껴 그리면 저작권 침해이지만 미대생의 습작을 베껴서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가치가 인정된 표현에만 저작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② 요리책을 복사해서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이지만 책에 소개된 요리 방법을 따라서 요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요리 방법이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③ 가위바위보의 승패 규칙을 설명하는 출판물을 제작할 때 그 설명 방식이 기존 출판물의 것과 같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④ 시판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배열로 컴퓨터 자판을 제작하여 판매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사실상의 표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⑤ 황량한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두 총잡이의 결투 장면을 새로 제작하는 서부 영화에 삽입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필수 장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3. ㉠～㉤ 중 문맥적 의미가 <u>다른</u>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⑤ ㉤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왜군이 조선을 침범하여 의주로 피란을 간 상(上)은 명나라에 원군(援軍)을 청한다. 이에 제독 이여송이 원군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온다.

차설. 제독이 의주에 사람을 보내어 상을 청하거늘, 상이 즉시 의주를 떠나 경성에 이르러 이여송을 보사 공로를 치사하시고 설연관대하실새, 천자가 사자를 보내어 왕상을 위로하시고, 용포(龍袍) 일령을 사송(賜送)하시며 제독에게 식물(食物)을 사급(賜給)하사, '호군(犒軍)하라.' 하시니, 상과 제독이 북향사배한 후 다시 술을 나누어 서로 권하시더니, 계수나무 버러지 삼십 개를 내어 놓으며 왈,

"이것을 서촉 해조국에서 제공하나니, 하나의 값이 삼천 냥이라. 사람이 먹으면 더디 늙기로 이제 조선왕을 대접하사 보내시니이다."

하고, 저를 들어 버러지 허리를 집으니 발을 허위며 괴이한 소리를 지르니, 부리 검고 빛은 오색을 겸하였으니 보기 가장 황홀한지라. 상이 처음으로 보시매 차마 진어치 못하사 주저하시니, 제독이 소왈,

"세상에 희귀한 진미를 어찌 진어치 아니하시나뇨?"

하며, 그것을 집어먹으니 보는 자 눈썹을 찡그리더라. 상이 무료하사 안색을 변하시니, 이항복이 생낙지 칠 개를 담아 드리거늘, 상이 저로 진어하실새 낙지 발이 저에 감기며 수염에 부딪치는지라. 상이 제독에게 권하신대, 제독이 낙지 거동을 보고 눈썹을 찡그리며 능히 먹지 못하니, 상이 소왈,

㉠ "대국 계충(桂蟲)과 소국 낙지를 서로 비하매 어떠하뇨?"

㉡ 제독이 웃고 다른 말 하더라.

[중략]

[A] 남원이 이미 함몰하매 전주로부터 망풍와해(望風瓦解)하니, 이로 인하여 양원호 북주(北走)하니라. 이때, 적이 승승장구하여 각읍 수령이 다 도망하되, 오직 의병장 곽재우만이 화왕산성에 올라 굳게 지키더니, 적이 이르러 본즉 산세가 험한지라. 감히 치지 못하고 물러가거늘, 재우가 군사를 몰아 도적의 뒤를 엄살하니 적이 패주하다가 황석산성을 치거늘, 김해 부사 백사림과 안의 현감 곽준과 함양 군수 조종도가 성중에 있다가 불의지변을 만나매, 인심이 소동하여 사산분주하니 곽준이 싸우다가 죽으니라.

곽준의 여자가 그 지아비 유문호로 더불어 한가지로 아비를 좇아 성중에 피란하였더니, 그 아비와 오라비 이미 죽고 그 지아비 또한 도적에게 잡힘을 듣고 탄식 왈,

"이제 아비와 지아비를 잃었으니 내 홀로 살아 무엇 하리오?"

하고, 목매어 죽으니라.

각설. 순신이 전선 수십 척을 거느려 진도 벽파정 아래 결진하였더니, 적장 마득시가 전선 이백여 척을 거느려 오거늘, 순신이 배에 대포를 싣고 순풍을 좇아 나오며 어지러이 놓으니 적장이 당치 못하여 달아나거늘, 순신이 뒤를 따라 일진을 짓치고 적장 마안둔을 베어다가 군정에 대진한지라. 드디어 고금도에 결진하니 군사가 이미 팔천여 인이요, 남녘 백성이 피란하여 오는 자가 수만이라.

무술 칠월에 천주 수군 도독 진인이 경성에서 장차 고금도에 나아가 순신으로 더불어 적을 치려 하여 발행할새, 상이 강두(江頭)에서 전송한지라. 진인의 천성이 본디 강포하매 두려워하는 자가 많은 고로, 진인의 군사가 수령을 욕매(辱罵)하여 조금도 기탄함이 없고, 찰방 이상규를 무수 난타하여 유혈이 낭자한지라. 상이 근심하사 순신에게 전지(傳旨)하여,

"진인을 후례(厚禮)로 대접하여 촉노(觸怒)함이 없게 하라."

하시다. 이순신이 진인의 일을 듣고 주육을 준비하여 진인을 맞아 예필하고, 일변 잔치를 배설하여 진인을 관대하고, 일변 천병을 공궤(供饋)하니, 군사가 서로 일러 왈,

"과연 양장(良將)이라." 하고, 진인이 또한 기꺼하더라.

일일은 도적 수백 척이 나오거늘, 순신과 진인이 각각 수군을 거느려 녹도에 이르니 적이 아군을 바라보고 짐짓 뒤로 물러가며 아군을 유인하니, 순신이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올새, 진인이 수십여 척을 머물러 싸움을 돕게 하니라. 진인이 순신으로 술을 먹더니 진인의 휘하 천총(千摠)이 전라도로부터 돌아와 가로되,

"오늘 아침에 도적을 만나 조선 군사는 도적 백여 명을 죽이되, 천병은 풍세가 불리하여 하나도 잡지 못하였다."

하니, 진인이 대로하여 천총을 등 밀어 내치고 잡았던 술잔을 땅에 던지니, 순신이 그 뜻을 알고 가로되,

"㉢ 노야(老爺)는 천조 대야(大爺)로 이곳에 이르렀으니 우리 승첩은 곧 노야의 승첩이라. 진중에 이른 지 불구에 첩서를 천조(天朝)에 보하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진인이 대희하여 순신의 손을 잡고 왈,

"내 일찍 그대의 성명을 우레같이 들었더니 과연이로다."

하고, 다시 술을 내와 즐기니라. 이로부터 진인이 순신의 진에 있어 그 호령이 엄정함을 탄복할 뿐 아니라, 저의 전선이 도적 막기에 불편하매, 매양 진을 임하여 아국 판옥선(板屋船)을 타고 순신의 지휘를 좇으며 ㉣ 반드시 '이야(李爺)'라 일컫고, 인하여 천조에 주문(奏聞)하되,

"통제사 이순신이 경천위지지재(經天緯地之才)를 품었고 보천욕일지공(補天浴日之功)이 있다." 하더라.

천병이 비록 순신의 위엄을 기탄(忌憚)하나 민간의 작폐가 가장 많으니, 일일은 순신이 하령하여 도중의 대소 여사(旅舍)를 불 지르고 자기 의금(衣衾)을 수습하여 배에 내리치더니, 진인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가정을 보내어 연고를 물은대, 순신 왈,

"소국 군민이 천병 믿기를 저의 부모같이 하거늘, 천병이 노략함을 힘쓰니 사람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지라. 내 이제 대장이 되어 무슨 낯으로 이곳에 머물리오? 이러므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노라."

하니, 가정이 돌아가 그대로 고하니, 진인이 대경하여 전도에 이르러 순신의 손을 잡고 만류하며 ㉤ 사람을 성중에 보내어 그 의금을 수운하여 드리고 간청하니,

순신 왈, "대인이 내 말을 들으면 어찌 서로 떠나리오?"

진인 왈, "내 어찌 공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오?"

순신 왈, "천병이 아국으로써 배신이라 하여 조금도 기탄함이 없으니, 만일 대인이 나로 하여금 제어케 하면 다른

염려가 없을까 하나이다."

진인 왈, "이 일이 무엇이 어려우리오? 만일 죄를 범하는 자가 있거든 공이 임의로 처치하라."

하니, 순신이 허락받은 후에 천병 중의 위령자(違令者)를 용서함이 없으니 천병이 두려워하기를 진인에게 지나더라.

- 작자 미상, 「임진록」

24.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러 삽화들을 제시하여 전체 사건의 여러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우의적 수법을 동원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서술자의 개입을 통한 주관적 논평을 중심으로 서술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④ 인물들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다양한 주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⑤ 이원적 세계를 설정하여 천상계의 갈등이 지상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항복'이 '생낙지 칠 개'를 담아 올린 것은 '이여송'이 '생낙지'를 좋아하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② '진인'의 군사가 조선의 관리를 거리낌 없이 모욕하고 구타한 것은 '진인'의 위세를 빙자하였기 때문이다.
③ '진인'이 전선 '수십여 척'을 머물러 지키게 한 것은 왜군과의 싸움에서 공을 세울 의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④ '진인'이 '천총'을 내친 것은 '천총'이 자신에게 실제 상황과는 다르게 전황을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⑤ '이순신'이 '여사'에 불을 지르고 '의금'을 수습한 것은 당장은 승산이 없다고 여겨 장차 진을 옮기려 하였기 때문이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상대방의 무례한 행위를 넌지시 일깨우려는 뜻이 담긴 발화이다.
② ㉡: 상대방의 질책에 반응하여 잘못을 멋쩍게 인정하는 뜻이 담긴 행동이다.
③ ㉢: 상대방의 능력을 칭송하며 그에 대해 감탄하는 뜻이 담긴 발화이다.
④ ㉣: 상대방을 특별히 공경하고 우대하는 뜻이 담긴 행동이다.
⑤ ㉤: 상대방의 결정이 번복되기를 바라는 뜻이 담긴 조치이다.

27. [A]를 통해 작품 속 상황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전세의 변화에 따라 적의 행로나 목적지가 바뀌기도 하였다.
② 적의 세력이 강하다는 풍문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치기도 하였다.
③ 집안 남성들의 상황에 따라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영향을 받았다.
④ 전란 중에 많은 수령들이 싸움을 회피했지만 끝까지 항전한 수령도 있었다.
⑤ 산성을 지키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은 의병장과 일부 수령의 공통된 전략이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임진록」에는 민족적 자긍심과 울분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조선에 뛰어난 인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외세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흔히 구현되는데, 특히 외세에 대한 반감은 왜군뿐 아니라 원군으로 조선에 온 명군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작품에는 민중의 생각과 정서가 깊숙이 반영되어 있다. 작품 속 인물들이 백성을 위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① '이여송'과 '진인'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왜군뿐 아니라 명군에 대해서도 반감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② '상'이 '천자'의 위로를 받고 '용포'를 하사받는 내용은 백성을 위하는 뛰어난 인물이 조선을 다스린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것이겠군.
③ '곽준'의 가족들이 죽는 장면이 제시된 것은 왜군에 대한 분노가 반영된 결과이겠군.
④ '진인'이 '이순신'의 역량을 인정하여 그 사실을 명나라 조정에까지 보고한 대목은 조선에 뛰어난 인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와 연관되겠군.
⑤ 명군의 노략질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이순신'의 모습을 통해 백성을 위하는 인물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겠군.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럽이나 북미의 서구인들은 발달된 산업 사회에서 많은 과학적 성과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지역의 원주민들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수백 년 전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인류 역사의 발달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약탈과 정복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러한 불평등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 주는 바가 거의 없다. 지역마다 다른 역사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유력한 주장 중 하나는 발전된 과학 기술이나 사회 제도의 출현 여부와 결부 짓는 것이다. 발달된 문명을 가진 지역의 경우에는 과학이 발달해 있고, 정치 체제를 비롯한 사회 구조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반면 낮은 수준의 문명을 가진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확실히 틀린 주장

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과연 지역에 따라 과학 기술이나 사회 제도의 발달이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다소 관점이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생물학적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견해로, 각 지역별 인종의 능력 차이가 문명 발달의 차이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다. 즉, 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선천적 능력 때문에 어떤 지역은 높은 문명을 발달시키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금기시하는 인종주의를 추구하는 견해에 다름 아니다. 사실 낮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에 의해 얼마든지 과학 기술을 숙지하고 사회 제도도 갖출 수 있다. 특히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삶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낮은 문명의 사람들이 높은 문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생물학적 관점은 타당한 견해로 수용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 환경적 관점으로, 각각의 지역이 처한 생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문명 발달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특히 농업의 발달과 이로 인한 잉여 생산물의 축적이 가능한 자연환경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은 사람들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인의 배출이 가능하고, 유산자와 무산자의 구분과 이에 동반되는 사회 구조의 정립 등이 뒤따르면서 결국 현재와 같은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 반면 농업 발달이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문명 발달도 지연되었고 그러한 상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견해가 환경 결정론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그 중요성이 무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연 과학, 유전학, 분자 생물학, 생태 지리학, 고고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은 생물학적 관점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

2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문명의 발달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문명 발달의 차이는 정복이나 약탈로 이어지기도 했다.
③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제약의 극복이 중요하다.
④ 문명의 발달을 인종 사이의 능력 차이와 결부 짓기는 어렵다.
⑤ 문명이 발달한 지역은 과학 기술이나 사회 제도가 발달해 있다.

3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②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다.
③ 같은 질문에 대한 이견을 소개하며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④ 다양한 사례를 들어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⑤ 쟁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정립하고 있다.

31. (a)와 (b)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 중에서 자연환경이 좋고 토지가 비옥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경제 규모도 더 크고 계급 분화 등의 사회적 복잡성도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b) 가뭄이 빈번하고 토양이 척박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러스 해협 인근 지역과 영구적인 큰 강이 많고 화산 활동 등으로 토양이 비옥한 뉴기니는 거리상으로 멀지 않지만 문화적으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 (a)는 ㉠의 사례로, (b)는 ㉡의 사례로 활용한다.
② (a)는 ㉠의 사례로, (b)는 ㉡의 반례로 활용한다.
③ (a)와 (b)를 모두 ㉠의 사례로 활용한다.
④ (a)와 (b)를 모두 ㉡의 반례로 활용한다.
⑤ (a)와 (b)를 모두 ㉡의 사례로 활용한다.

32.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상황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세계사의 서술 범위는 대체로 문자가 쓰이고 이를 통한 역사 서술이 이루어진 약 5,000년 동안의 시기에 집중되며, 서술의 대상은 이집트나 중국 등 발전된 문명을 가진 경우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다.

① 세계사의 서술 범위가 좁아져서 모든 문명의 발달 과정을 다루지 못한다.
② 문명 발달 자체가 불평등하게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③ 문명 발달의 요인을 비윤리적인 측면에서 찾음으로써 도덕적 문제를 야기한다.
④ 특정 지역의 문명에만 가치를 두게 되어 문명들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⑤ 미시적이고 주변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어 문제 해결의 핵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인간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인간 만물 생긴 후에 금수 초목 짝이 있다
인간에 생긴 남자 부귀 자손 같건마는
이내 팔자 험궂을손 날 같은 이 또 있든가
백 년을 다 살아야 삼만 육천 날이로다
㉠ 혼자 살면 천년 살며 정녀(貞女) 되면 만년 살까
답답한 우리 부모 가난한 좀 양반이
㉡ 양반인 체 도를 차려 처사가 불민(不敏)하여
괴망을 일삼으며 다만 한 딸 늙어 간다
적막한 빈방 안에 적료하게 홀로 앉아
전전반측 잠 못 이뤄 혼자 사설 들어 보소
노망한 우리 부모 날 길러 무엇 하리
죽도록 날 길러서 잡아 쓸까 구워 쓸까
인황씨 적 생긴 남녀 복희씨 적 지은 가취(嫁娶)
인간 배필 혼취(婚娶)함은 예로부터 있건마는

ⓑ 어떤 처녀 팔자 좋아 이십 전에 시집간다
남녀 자손 시집 장가 떳떳한 일이건만
이내 팔자 기험(奇險)하야 사십까지 처녀로다
이런 줄을 알았으면 처음 아니 나올 것을
월명 사창 긴긴 밤에 침불안석 잠 못 들어
적막한 빈방 안에 오락가락 다니면서
장래사 생각하니 더욱 답답 민망하다
ⓒ 부친 하나 반편(半偏)이요 모친 하나 숙맥불변(菽麥不辨)
날이 새면 내일이요 세가 쇠면 내년이라
혼인 사설 전폐하고 가난 사설뿐이로다
어디서 손님 오면 행여나 중매신가
아이 불러 힐문한 즉 ㉣ 풍헌(風憲) 약정(約正) 환자(還子) 재촉
어디서 편지 왔네 행여나 청혼선가
아이더러 물어보니 외삼촌의 부음이라
애고애고 설운지고 이내 간장 어이할꼬
앞집에 아모 아기 벌써 자손 보단 말가
ⓒ 동편 집 용골녀는 금명간에 시집가네
그동안에 무정 세월 시집가서 풀련마는
친구 없고 혈족 없어 위로할 이 전혀 없고
우리 부모 무정하여 내 생각 전혀 없다
ㅁ 부귀빈천 생각 말고 인물 풍채 마땅커든
처녀 사십 나이 적소 혼인 거동 차려 주오
ⓓ 김동(金童)이도 상처(喪妻)하고 이동(李童)이도 기처(棄妻)로다
중매 할미 전혀 없네 날 찾을 이 어이 없노
┌ 감정 암소 살져 있고 봉사 전답 같건마는
│ 사족 가문 가리면서 이대도록 늙히노니
│ 연지분도 있건마는 성적 단장(成赤丹粧) 전폐하고
└ 감정 치마 흰 저고리 화경 거울 앞에 놓고
[A] 원산 같은 푸른 눈썹 세류 같은 가는 허리
┌ 아름답다 나의 자태 묘하도다 나의 거동
│ 흐르는 이 세월에 아까울손 나의 거동
│ 거울더러 하는 말이 어화 답답 내 팔자여
└ 갈데없다 나도 나도 쓸데없다 너도 너도
우리 부친 병조 판서 할아버지 호조 판서
우리 문벌 이러하니 풍속 좇기 어려워라
아연듯 춘절 되니 초목 군생 다 즐기네
두견화 만발하고 잔디 잎 속잎 난다
삭은 바자 쟁쟁하고 종달새 도루 뜬다
춘풍 야월 세우 시에 독수공방 어이할꼬
ⓔ 원수의 아이들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앞집에는 신랑 오고 뒷집에는 신부 가네
내 귀에 듣는 바는 느낄 일도 하도 많다
녹양방초 저문 날에 해는 어이 수이 가노
초로 같은 우리 인생 표연히 늙어 가니
머리채는 옆에 끼고 다만 한숨뿐이로다
긴 밤에 짝이 없고 긴 날에 벗이 없다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시금 생각하니
아마도 모진 목숨 죽지 못해 원수로다

- 작자 미상, 「노처녀가」

3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가 겪고 있는 문제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한탄하고 있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정서를 순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의지적 어조를 통해 미래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강조하고 있다.
④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 심리를 추상적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화자가 겪어 온 갈등의 양상을 상세화하고 있다.

34.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화자의 사연을 듣도록 설정된 청자로서 화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존재이다.
② ⓑ : 화자가 선망하는 대상으로서 화자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그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다.
③ ⓒ : 화자와 아픔을 공유해 왔던 친구로서 화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친구를 비난하고 있다.
④ ⓓ : 화자가 자신의 배필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는 대상으로서 화자는 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 ⓔ : 화자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식들을 전해 주는 존재로서 화자는 그들과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3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화자는 시간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② 화자는 시집을 가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화자는 단장할 도구는 지니고 있지만 시름에 싸여 있어서 단장을 하지는 않는다.
④ 화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대구로 표현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⑤ 화자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다소간 위안을 얻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할 때, ㉠~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노처녀가」에 나타나는 갈등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노처녀가」에는 부모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반발, 양반 계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 본성의 억제를 당연시하는 재래적 관념에 대한 거부, 개인의 행복보다 집단의 안위를 중시하는 폭압에 대한 저항 등이 발견된다.

① ㉠ : 본성이 억제된 삶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② ㉡ : 양반이라는 지위에 집착하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허위의식을 폭로하고 있다.

③ ㉢ : 부친과 모친의 어리석음을 직접적인 어휘로 표출함으로써 부모의 절대적 권위에 반발하고 있다.
④ ㉣ : 끊임없는 수탈을 고발함으로써 개인의 행복보다 집단의 안위를 앞세우는 폭압에 저항하고 있다.
⑤ ㉤ : 집단의 요구를 따르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노처녀가」의 이본은 단형과 장형의 두 계열로 나뉘는데, 윗글은 단형 계열의 작품이다. 장형은 전반적인 내용은 단형과 유사하지만 묘사가 더 자세하고 해학적인 측면이 강화되어 있다. 또한 인물의 적극적인 행동이 부각되며 화자의 처지에 대한 동정적 시선이 발견된다. 장형 계열의 종결부에서는 '노처녀'가 평소 연모해 왔던 '김 도령'과 가상으로 혼례를 치르는 장면 등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이 알까 부끄러우나 안 슬픈 일 하여 보자
홍두깨에 자를 매어 갓 씌우고 옷 입히니
사람 모양 거의 같다 쓰다듬어 세워 놓고
새 저고리 긴 치마를 호기 있게 떨쳐 입고
머리 위에 팔을 들어 제법으로 절을 하니
눈물이 종행하여 입은 치마 다 적시고
[B] 한숨이 복발(復發)하여 곡성이 날 듯하다
마음을 강잉(强仍)하여 가만히 헤아려 보니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런 모양 이 거동을
신령은 알 것이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부모들도 의논하고 동생들도 의논하여
김 도령과 의혼(議婚)하니 첫마디에 되는구나
혼인 택일 가까우니 엉덩춤이 절로 난다

① [B]에서 화자가 가상으로 혼례를 치른 것은 자신의 적극적 행동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이겠군.
② [B]에서 '김 도령'과의 혼사가 결정된 결말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화자의 처지에 대한 동정적 시선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③ [B]에서 '홍두깨'를 '김 도령'처럼 꾸미는 장면을 설정한 것은 해학적인 측면이 강화된 장형 계열의 특성과 연관되겠군.
④ [B]에 윗글에는 없는 장면이 포함된 것을 보면 작품이 장형화된 이유 중 하나로 새로운 내용의 삽입을 들 수 있겠군.
⑤ [B]에서 혼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한 의복과 혼례의 상황까지 제시된 것은 장형 계열에 나타나는 구체적 묘사를 보여주는 사례이겠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자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되어 생명의 분자를 구성한다. 그러려면 기본 뼈대가 있어야 한다. 생명의 원소 뼈대는 '…탄소-탄소-탄소-…'이다. 뼈대를 담당하는 원소는 오로지 탄소 하나뿐이다. 탄소에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다랗게 연결되는 능력이 있다. 도대체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생명의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이 결합되는 데는 조건이 있다. 바로 전자를 공유하는 것이다. 서로 결합하려면 먼저 함께 나눌 전자를 내놓아야 한다. 물론 아무 전자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는 핵을 둘러싼 여러 껍질에 나누어 분포하는데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만 공유할 수 있다. 하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결합하겠는가?

수소는 한 개의 전자를 내놓을 수 있다. H· 또는 ·H라고 표현한다. 잡을 수 있는 손이 하나이다. 산소는 전자를 두 개 내놓아 ·O·가 된다. 잡을 수 있는 양손이 있는 셈이다. 결합이란 손과 손이 맞잡는 것이다. 이를 '공유 결합'이라 한다. 수소는 손이 하나뿐이니 결합을 하나만 할 수 있지만 산소는 손이 둘이니 두 개의 수소와 결합할 수 있다. H:O:H처럼 말이다.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H_2O'라고 쓰고 '물'이라 읽는다.

수소처럼 손이 하나 있거나 산소처럼 손이 두 개만 있어가지고는 뼈대를 이룰 수 없다. 손이 앞뒤 좌우에 네 개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위와 아래에 있는 손으로는 뼈대를 이루고 양쪽에 있는 손으로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탄소는 손이 네 개다. 덕분에 생명의 뼈대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다. 사실 탄소보다 산소가 바깥 껍질에 더 많은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탄소는 네 개뿐이지만 산소는 여섯 개나 된다. 손이 여섯 개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양쪽 손을 제외한 네 개의 손은 다른 원자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두 개씩 손을 잡고 있다. 그래서 뼈대를 이루지 못한다.

산소가 공유하는 정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산소의 바깥 껍질에는 전자들이 들어가는 방이 각각 네 개씩 있다. 산소는 네 개의 방을 여섯 개의 전자가 나눠서 써야 한다. 어떻게 나눠 쓸 수 있을까? 일단 앞뒤 좌우 네 개의 방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간다. 전자가 아직 두 개 남았는데 이젠 빈 방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앞방과 뒷방에 전자가 하나씩 더 들어가야 한다. 같은 방에 둘이 있으니 손을 꼭 잡고 잘 수밖에. 앞쪽 방 전자들만 다른 원자의 전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

탄소 역시 가장 바깥 껍질에는 방이 네 개 있다. 탄소는 네 개의 전자들이 방을 하나씩 쓰면 된다. 앞뒤 좌우 방 네 개를 차지한 전자들은 외롭다. 누군가에게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 덕분에 탄소는 뼈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탄소의 전자들이 각방을 쓰지 않고 한 방에 두 개씩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행위는 원자 호텔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원자 호텔은 일단 각자 방을 하나씩 배정하고 빈방이 없을 때만 한 방에 전자 하나씩 더 들어가게 해 놓았다. 그것도 같은 성질의 전자여서는 안 된다. 하나는 위쪽에 베개를 두고 자는 전자라면 다른 하나는 아래쪽에 베개를 두고 자는 전자여야 한다.

원자의 호텔방을 과학자들은 '오비탈'이라고 한다. 그리고 먼저 각방을 채운 다음에 합방을 시키되 결코 같은 성질의 전자가 같은 방을 써서는 안 되는 규칙을 '파울리의 배타 원리'라고 한다. 파울리는 그 규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다.

배타 원리는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 자기 사람으로 방을 채우면 결합은 이뤄지지 않는다. 방을 비워 놓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무너지지 않는 세상의 뼈대가 생긴다.

3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산소는 여섯 개의 전자와 결합하여야만 생명의 뼈대를 이룰 수 있다.
② 산소와 수소가 각각 두 개의 공유 결합을 하여 이루어진 것이 '물'이다.
③ 원자들은 안쪽 껍질의 전자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생명의 분자를 구성한다.
④ 탄소의 전자들은 같은 성질을 가진 네 개의 전자들이 두 개씩 어우러져 한 개의 오비탈을 구성하고 있다.
⑤ 오비탈은 각각의 전자로 모든 방을 완전히 채운 다음에 다른 성질의 전자를 각각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다.

39.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설명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② 의인화와 같은 비유를 동원하여 설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③ 유추의 방식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여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④ 설명하려는 내용을 물음의 형식으로 제시한 후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⑤ 과학적 현상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40. 윗글에 근거하여 <보기>의 A, B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가상의 원자 A와 B가 존재한다. A는 가장 바깥 껍질에 5개의 전자가 있고 방이 5개 있다. B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고 방이 4개 있다. A와 B는 전자를 공유할 수 있다.

① A의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모두 각방을 사용한다.
② A가 다른 원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5개이다.
③ B가 다른 원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1개이다.
④ B의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중 각방을 사용하는 것은 1개이다.
⑤ A와 B가 결합하여 A_5B와 같은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태연스럽게 그러한 얘기들을 나누던 유생들도, 오봉 선생의 관이 땅속으로 들어가자, 상가 가족들 못지않게 비통한 표정들을 하였다. 오봉 선생의 옥중 동지였던 한 선비는 일부러 가야 부인을 찾아와서 흐느끼는 부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까지 하였다. ⓐ<u>(그는 재판정에서 그녀의 얼굴을 기억했던 것이다.)</u>

㉠<u>"오, 효부였더군! 내 까막소에서 오봉으로부터 잘 들었소. 친정이 김해라 했지요? 나는 창원이요. 창원 김 진사라면 다 아요."</u>

이러고는 다시,

"억울하지! 만약 우리 오봉과 가야 부인 같은 이들만이 땅에 살았더람……."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선비들이 모여 앉은 잔디밭께로 돌아갔다. 위엄이 있는 말씨라든가, 자가 넘게 자란 흰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돌아가는 모습이 과연 기백이 대단한 어른같이 보였다. 결국 이 창원 김 진사란 선비가 그냥 있지를 않았다. 평토제가 끝나고 해반과 아울러 으레 있는 식사와 주찬이 나돌 무렵이었다. 술도 얼마 돌지 않았을 땐데, 별안간 선비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호통 소리가 일어났다.

"이놈, 개 같은 놈!"

소리의 주인공은 아까 그 창원 김 진사란 늙은 선비였다. 그는 계속 수염을 부들부들 떨며,

㉡<u>"오봉은 바로 네 자식이 죄있단 말여! 알겠나, 이 개 같은 놈아? 알았음 썩 물러가거라! 뻔뻔스럽게……."</u>

"이놈이 무슨 소릴 대에놓고ⓑ<u>(함부로)</u> 하노?"

상대방은 역시 이와모도 참봉이었다. 이와모도도 같이 수염을 떨어 댔다. 얼굴이 넓적해 그런지 꼭 삽살개가 으르대는 것 같았다. ㉢<u>아무래도 그는 처음부터 자릴 잘못 잡았던 것이다. 애당초 그런 데 온 것부터가 그렇고…….</u>

그러나 그도 지기는 싫었다. 지다니!

"이놈아, 안 가라 캐도 갈 끼닷! 버릇없는 니놈과 자리를 같이하다니……."

이와모도 참봉은 벌써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다. 상주들이 달려가 말리었으나, 이와모도 참봉은 들을 리 만무했다. 그는 화를 머리끝까지 올려 가지고 어기적어기적 산을 내려갔다.

"저런!"

상가측에서 백관 한 사람이 급히 그를 뒤따라갔다.

[중략]

죽은 이와모도 참봉의 아들 이와모도 경부보 같은 위인들이 목에 핏대를 올려 가며 그들의 '제국'이 단박 이길 듯 떠들어 대던 소위 대동아 전쟁이 얼른 끝장이 나긴커녕, 해가 갈수록 무슨 공출이다, 보국대다, 징용이다 해서 온갖 영장들만 내려, 식민지 백성들을 도리어 들볶기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제국'의 빛나는 승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들 했다.

몰강스런 식량 공출을 위시하여 유기 제기의 강제 공출, 송탄유와 조선(造船) 목재 헌납을 위한 각종 부역과 근로 징용은 그래도 좋았다. 조상 때부터 길러 오던 안산 바깥산들의 소나무들까지 마구 찍혀 쓰러진 다음엔 사람 공출이 시작되었다. **'전력 증강'이란 이유로 영장 받은 남정들은 탄광과 전장으로, 처녀들은 공장과 위안부로 사정없이 끌려 나갔다.** 그러한 오봉산 발치 열두 부락의 가난한 집 처녀 총각과 젊은 사내들은 이마를 히노마루ⓒ<u>(일본 국기)</u>에 동여매인 채, 울고불고하는 가족들의 손에서 떨어져, 태고나루에서 짐덩이처럼 떼를 지어 짐배에 실렸다. ⓓ<u>(물금까지 나가면 기차편도 있었지만 차는 위데에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로 항상 만원이었다.)</u> ㉣<u>손자녀를, 자식을, 남편을, 딸을 그렇게 빼앗긴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안내 들은 태고나루에서 눈물을 짓다 가까운 미륵당을 찾기가 일쑤였다.</u> "명천하느님요!" 하고 땅을 치던 **그들은 말 없는 미륵불 앞에**

엎드리어 떠난 아들딸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비는 것이었다.

"시줏돈을랑 그만두이소! 내가 대신 다 내놓았임데이……."

㉤ 돌아간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 그리고 만세통에 총 맞아 죽은 시숙과 딸의 영가를 거기에 모셔 둔 가야 부인은 오면가면 그러한 분들을 위로하기에 바빴다.

"억울한 말이싸 우째 다 하겠능기요. 나도 이렇게 안 살아 있능기요."

흐느끼는 아낙네들의 손을 잡아 주며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이었다. 먼데서 온 분은 기어이 재워 보내기도 했다. 그것은 가야 부인 자신에게도 필요한 공덕이었다.

- 김정한, 「수라도」

4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에 내재된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② 인물의 내적 독백을 사용하여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작가가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특정 인물의 반어적 어조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⑤ 공간의 이동과 변화를 중심으로 인물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42.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야 부인'은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무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김 진사'는 기개와 위엄을 갖춘 꼿꼿한 선비로 시대와 현실에 비판적인 태도를 지녔을 것으로 여겨진다.
③ '이와모도 참봉'은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오봉 선생'과 '가야 부인'은 유교를 신봉해 유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⑤ '오봉 선생'과 '김 진사'는 나라를 걱정하는 유생으로 함께 옥살이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시아버지와의 인연과 가까운 지역 사람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가야 부인'과의 친밀감을 표출하고 있다.
② ㉡: '오봉 선생'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직접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을 강화하고 있다.
③ ㉢: '이와모도 참봉'이 상가에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게 함으로써 '김 진사'와 '이와모도 참봉'의 갈등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④ ㉣: 가족을 잃은 슬픔을 종교에 의탁해 해소하려는 사람들을 통해 현실을 벗어난 초월의식에 기대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⑤ ㉤: 여러 대에 걸쳐 힘든 삶을 이어온 집안의 내력을 설명함으로써 '가야 부인'의 이웃들에 대한 동병상련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도를 명시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② ⓑ와 ⓒ는 방언과 표준어를 병렬하여 독자에게 어휘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③ ⓒ와 ⓓ는 낱말과 문장의 내포적 의미를 상세하게 풀이하여 독자의 의문을 해소하고 있다.
④ ⓐ와 ⓓ는 인물의 행위나 사건에 관한 이유를 덧붙여 설명하여 서사의 개연성을 보충하고 있다.
⑤ ⓑ와 ⓓ는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여 이야기의 심층을 표면화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수라도」는 일제 말 낙동강 변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조선인의 현실을 증언한 작품이다. 항일 독립운동 내력을 가진 오봉 선생 집안과 친일 협력으로 권세를 얻은 이와모도 집안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일본 경찰로 탈바꿈하여 일본인보다 더욱 악랄하게 조선인을 탄압하는 또 다른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했다. 특히 일제말 창씨개명과 내선일체에 동조하고 대동아 전쟁에 적극 협력했던 이와모도의 큰아들이, 일제 치하에서는 도경 고등계 경부보로 있다가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데서,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권력이 처단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권력이 유지되었던 국가적 모순을 비판하고자 했다.

① "억울하지! 만약 우리 오봉과 가야 부인 같은 이들만 이 땅에 살았더람……."이라는 데서, '일본인보다 더욱 악랄하게 조선인을 탄압하는 또 다른 우리 민족의 모습'에 대해 한탄하고 있음을 알겠군.
② "죽은 이와모도 참봉의 아들 이와모도 경부보 같은 위인들"을 제시한 데서,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권력이 처단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권력이 유지되었던 국가적 모순'의 근거로 삼고자 했음을 알겠군.
③ '보국대'와 '징용'이 "'제국'의 빛나는 승리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한 데서, '내선일체에 동조하고 대동아 전쟁에 적극 협력했던 이와모도의 큰아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겠군.
④ "'전력 증강'이란 이유로 영장 받은 남정들은 탄광과 전장으로, 처녀들은 공장과 위안부로 사정없이 끌려 나갔다."라는 데서,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조선인의 현실을 증언'하고자 했음을 알겠군.
⑤ "그들은 말없는 미륵불 앞에 엎드리어 떠난 아들딸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비는 것이었다."라는 데서, '항일 독립운동 내력을 가진 오봉 선생 집안'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겠군.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